



THE GOSPEL NEWS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1년 9월 1일 (수) 제 809 호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 영 철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 이웃 사람 속의 예수

<마태복음 25:31~40>

나카에 요이치 (히로시마교회 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년사> (이정일목사 지음)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제29회 정기총회(1973년)에서 ‘선교기본정책’을 채택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처해 있는 맥락속에서 받아들이고, 복음의 시대적 사명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란 정치적·사회적·사상적인 면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 옹호와 복지 문제가 복음 선교 사업과 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총회의 선교 기본 정책의 기본적 자세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교기본정책>은 선교 60주년의 표어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으로>에 나타난 방향성을 신학/선교론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 정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해 준 역사적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218-219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정책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 문제에 대처해 왔으며, 인권 차별 철폐 운동의 일환으로 지문날인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총회는 이 운동의 지원과 함께 인권 차별 현상을 알릴 목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관동대지진/조선인 학살 사건이 있었던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는 안건을 1985년 제38회 정기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 인권 문제에 대한 행동은 현재 재일동포로만 국한하지 않고 난민 및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 모든 재일 외국인의 인권 문제까지 그 시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보고, 교회에서 그러한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실 분이 계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름아닌 ‘신앙의 문제이며’ 혹은 ‘신앙의 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스스로 그랬던 것처럼 인권이 깃뻛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단죄되어 사회 저변으로 내몰린 창녀와 세리, 병자와 장애인, 또 이방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권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그들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비유를 이용한 가르침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5장에서 7장의 이른바 산상 수훈이며, 25장에 기록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특히 25장은 수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의 중심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여기에서는 종말에 있어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5-36)

여기에서는 의/식/주/건강/자유라는 5개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주님 자신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시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 사람으로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이웃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일상적인 이상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우려와 불안>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과 배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부조리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전국연합회

# 선교사회국에서 연수회 개최 리모트로 행하여, 전국에서 104명이 참가

전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2021년 7월10일(토)에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까?~라는 주제·부제로 연수회를 열어 104명이 참가했다.

이현지회장의 개회기도로 시작해, 1부는 고부치자와(小淵沢) 올리브교회 사카모토다카시(坂本高志)목사의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까?>라는 주제로 강연, 2부에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린이·한부모·이주 외국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横浜에 있는 NPO법인 신아이쥬크(信愛塾) 다케가와마리코(竹川真理子) 센터장이 강연을 했다. 강연 후 그룹토론, 발표를 통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오래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화면상이지만 104명의 참가자와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보고:선교 사회국원 김혜진)



관서지방회

# 배정애목사 위임식 거행 이상만장로 취임식도—枚岡교회에서



배정애 목사



이상만 장로

지난 7월25일, 관서지방회 히라오카교회에서는 배정애목사 위임식과 이상만장로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전성삼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설교는 중경총회장 김무사목사(오사카니시나리교회)가 <온유한 마음으로>(딤후1:14, 살전5:16-18)라는 제목으로 하였다.

이어진 목사 위임식 및 장로 취임식은 관서지방회장 허백기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와 서약이 있는 후 선포로 이어졌다.

금번 히라오카교회에 위임받은 배정애목사는 196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구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한 후에는 관서성서신학원과 도시사대학원 신학연구과를 졸업하였으며, 2018년5월에 관서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군과 2남2녀가 있다.

장로 취임을 한 이상만장로는 196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10년에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았으며, 히라오카교회로 이적한 후, 금번 시무장로로 취임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2녀가 있다.

중부지방회

# 김형진목사 위임식 거행 치쿠마비전전도소에 선교사로서 파견



지난 8월26일, 중부지방회 치쿠마비전전도소에서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부임한 김형진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신형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늦게 거행된 위임식은 임시당회장 최화식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설교는 김명균목사(나고야교회)가 <내게서 들은 바를>(딤후2:1~2)의 제목으로 하였다.

위임식은 중부지방회장 김명균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와 서약, 기도 후에 김형진목사가 치쿠마비전전도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였다.

금번 위임받은 김형진목사는 197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0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금번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 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6回 定期總會 召集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6回定期總會を總會憲法第13章(總會)、第60条(定期總會組織)、第61条(定期總會召集)と總會規則第2章(定期總會)、第3章(總代)第3条(總代及び準總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 (1) 主題: 「고난의 시대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교회」(예레미야 29:11)  
「苦難の時代に平安と希望を与える教会」(エレミヤ29:11)

- (2) 日程: 2021년11월23일(火) 10:00~18:00(一日のみの總會)

- (3) 会場: 在日大韓基督教会 大阪教会 大阪生野区中川西2-5-11 (☎06-6712-3377)

※「總代・準總代の交通費・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總會規則 第3章第3条4項)

2021年8月1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總會長 趙永哲 書記 梁榮友



# 전협 0B들의 서신 3

## 일생의 동료

쿠마모토교회 목사 김 성 호



1980년5월 광주사건을 세계에 전한 독일 기자와 그를 사건의 현장으로 보내준 택시기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약속은 바다를 넘어” (2018년)을 보면서, 제가 처음 참가한 1980년8월 전협수양회(鷺羽山)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위원 이근수, 총무 이상호)

그 때 특별보고로써 광주사건의 실태를 듣는 시간이 있어, 큰 충격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양회에서 돌아와 광주사건을 알게 된 청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의논중에 기도를 열기로 했는데, 장소를 빌려준 곳은 관서에서는 大阪교회 뿐이었습니다. 1980년의 정치상황이 그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

다. 그 후, 청년회에 불협화음이 생겨,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민족차별과 싸우며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을 <사회파>라 부르고, 사회적 문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신앙에만 집중하는 그룹을 <복음파>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북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在日의 교회 청년회에 불필요한 분열이 생겨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 때에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양회는 재일동포 그리스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신나게 놀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총회로부터 자주 비난을 들었습니다. ‘수양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청년을 보낼 수 없다고...’ 죄송합니다.

1980년대 중앙위원으로, 그리고 대표위원을 2기 일한 자로서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이 많았지만 훌륭한 선배, 동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고, 저희들을 지켜 지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협의 선배, 친구들은 목사 아니면 장로로서 총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

다. 4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성대모사 성호’ 는 변하지 않았습니

## 비옥한 토양과 같은 곳

교토남부교회 목사 허 백 기



전협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조국과 재일성이 그토록 고집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EYCK과의 관계에 의해서 유학을 간 한국에서 지금의 아내와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형성하는 비옥한 토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전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전협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당시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뚜렷한 결실이 보이기 어려운 그 활동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재일대한의 성도 여러분께 진심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전협에서 저는 결코 중심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중앙위원을 단 1기 2년, 그것도 한 부원으로서 선배들의 뒤를 줄줄 붙여 다니면서 불성실한 심부름꾼 역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전협에 바친 공헌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꾸로 제가 전협에서 받은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이유없이, 아니 집안 어른로부터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교회에서, 전협을 통해 처음으로 “있을 자리” 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이 아닌 일본 땅에 재일한국인으로 태어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과 민족 마이너리티임, 그래서 사회에서 깊어져나가야 할 어떤 역할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깨달음이 제 내면에서 처음으로 하나로

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길을 헤매고 또 탈선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그때의 열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으면서 지금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대 말에서 20대 초라는 고민이 많고 다감한 시기에 많은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밤새 대답이 나올 수 없는 논쟁을 계속하거나 서로의 미흡한 생각들을 충돌시키곤 했던 그때가 지금도 자주 생각납니다. 그 곳은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로 지금도 저의 인생을 기도와 조언으로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때 뜨겁게 신앙을 표명하고 의와 사랑에 불타 있었던 많은 동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전협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이 이 땅에 놓여진 의미를 일깨워주는 곳으로 남아 있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응원해나가고 싶습니다.

##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정표

요코스카교회 윤 경 혜



1980년 봄, 京都교회 청년회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나는, 태어나고 자란 일본 사회에서 그 사람들과는 다른 ‘在日’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시기가 되어, 드디어 사회에 발을 내밀어야 하는 나에게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그런 긴장에서 해방시키고 심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는 소극적인 나는, 그해 여름 처음 청년회 선배들에게 이끌려 岡山의 鷺羽山(와슈잔)에서 열린 전협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전협 대표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찬송, 기도, 눈물,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걱정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과의 연대와 일본 사회의 인권 문제를 뜨겁게 논쟁하였으며, 그것이 밤새껏 계속되어 새벽 예배는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한 밀도 높은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만으로 벅했으며, 출신으로 이어지는 조국에 대한 생각은 ‘성가신 존재’였지만, 그 때 처음으로 조국을 생각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배들은 초년생들인 우리에게 매우 상냥하게 말을 걸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작은 목소리가 분단의 ‘촌극’의 주제가 되어 ‘나의 생각’에 공감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두의 ‘공유의 경험’이 되어가는 순간, 자신의 십자가(무거운 짐)가 가벼워져 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 십자가를 함께 메어 주는 ‘동료’가 있다. 그 소중한 동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수양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정표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목사님들과 동료에 힘입어 일본의 마이너리티 회의(北海道·沖繩), WSCF 아시아 청년 연수(홍콩 1개월), NCC 청년 교류회, 京都 東九条 현장 연수, 전협 중앙위원 모임과 소중한 만남이 주어졌으며 그러한 경험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부터 반년 ~ 형질 조각 같은 시민 저항 운동 ~

마이너리티선교센터 共同主事 渡邊さゆり(와타나베 사유리)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는 10년 전 민정 이관 후에도 국군의 권력이 남아있으면서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시아 최후의 개척지’ 라면서 대기업은 빠짐없이 미얀마에 경제 침출하였습니다. 지하 자원 채굴에 따른 난개발이 해외 기업이 하게되고 주민(특히 소수 민족)들은 공해와 노동 착취에 시달리면서 개발에 대한 저항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진압이라고 칭하면서 자국민을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국군의 보호를 받은 외국 기업은 미얀마를 먹이감으로 여겨 왔던것입니다. 그 국군이 항일군(抗日軍)으로 1945년 3월 27일에 결성된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국군의 <모델>은 일본 제국 군대이며 그 잔혹성은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135여개의 민족으로 형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버마족 우대 정책하에서, 민족 독립을 요구하는 저항 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 쿠데타가 있습니다.

쿠데타 직후, 군은 계엄령을 발동하고 전권을 국군 총사령관 <민 아웅 프라인>이 장악한 것을 선언했습니다. 도시의 시민은 상점, 은행에 쇄도하고 시민 생활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사람들은 실의에 찬 말과 저항의 호소를 SNS에 계속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Z세대로 불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젊은이들은 분발하여 일어났습니다. 저항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냄비 두드리는 것은 미얀마의 풍습에서 ‘악’을 내쫓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냄비를 두드리면서 계속 “우리는 국군에 의한 정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호소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반 군사 저항 운동은 NLD(국민 자유 민주당)의 지휘하에 있지 않고, 지역, 세대, 종교,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을 한울의 실이 한 장의 천을 뜨개질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CDM’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국군에 의한 정치에 대한 불복종을 결의하고 직무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CDM 참가자들은 해고당하였으며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CDM은 다른 직종에도 확산되어 철도원, 공무원, 교사... 국군은 CDM참가자를 반역자로 체포, 구속 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국군의 공격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930명 이상, 부상자는 수십 배, 구속된 사람은 총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상당한 고문을 받아 죽어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시신 인수를 유희화 하여 가족에게 연락한다는, 그러한 보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어, 세 명 중 한 명 이상의 양성 비율입니다. 이 사태에 즈음하여 민간인에게 산소 bombe 공급을 국군은 제한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자유가 없어, 음식이 없어지고 산소가 없어 생명이 없어진다.” 그러한 가운데 CDM 의료 종사자들은 필사적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연히 在日 미얀마인 친구가 있을 뿐입니다. 2월1일 “큰일났다”는 소식 이후, 고문과 시신의 사진과 동영상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국군과의 파이프를 유지하면서 중개 역할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무성에 요청하러 갔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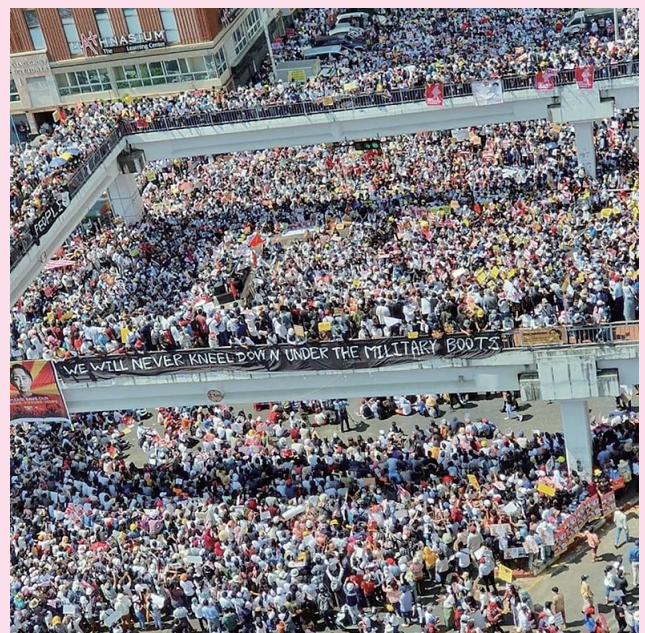
외교관은 국군을 비판하는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일본은 국군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얼굴을 계속하면서 물밑으로는 국군의 후방 지원도하고 있습니다. 在日 미얀마인들은 불안정한 일본에서의 삶,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자신도 고문을 받게 된다고 무서움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급적으로 체류 허가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난민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분할 따름입니다.

한편, 한국은 처음부터 국군의 지배에 반대를 표명하고 시민들을 지지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습니다. <친구><아는 사람>이라며 도대체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듣고 있는 것만으로 좋은 것일까, 라는 그 물음과 패배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힘 없어 보이고 그러나 확실한 저항 <기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미얀마를 기억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毎回 약 90명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기도, 그리고 냄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아투투(함께라는 버마어) 미얀마 지원’이라는 후원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얀마 국내 피난자, CDM 참가자에 대한 지원, 일본에 있는 미얀마인의 체류를 지원, 얼굴이 보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신 것 처럼, 작지만 살아있는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祈り会：毎週金曜日 夜9時～9時40分(ズーム)  
ミーティングID：835 4339 0368 パスコード：540189  
アトウトウミャンマー支援  
郵便局備え付けの青色払込票で  
00190-4-119379  
加入者名：外キ協  
※通信欄に「ミャンマー」と記してください。



쿠데타 당시의 양곤 시내에서의 대규모 민중 데모